

# 추석선물판매 김영란법에도 '이상무'

### 브랜드·가격대도 이전과 별반 차이 없어... 오히려 4만원대 선물세트 인기

"언론에서 김영란법이 자주 거론돼 매출이 걱정됐지만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선물세트 브랜드 가격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호들갑을 떠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주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의 말이다.

기자는 지난 31일 전주 한 대형마트를 방문했다.

이날 이씨를 비롯해 대부분의 직원들은 판매대에 수북히 쌓여 있는 추석선물세트 판매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올해는 김영란법 영향으로 선물세트 판매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선물세트 역시 알뜰선물세트(2만원대), 실속선물세트(2만~5만원대), 고급선물세트(5만~10만원대), 최고급선물세트(10만이상)으로 이전 가격대 구성과 벗어나지 않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이전과 비교 했을때 4만원대 초중반 선물 세트가 5만원이상 선물이 금지된 김영란법 영향으로 4만 9,500원 등으로 맞춰져 반사이익을 얻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반응이다.

인근 대형마트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대부분 품목별로 2~5만원대의 중저가 선물세트로 구성돼 있었다.

매장 담당자는 "공무원, 언론인 등 김영란법 규정에 속한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추석선물세트 가격대를 보면 예년과 차이가 없다"고 잘라 말

했다.

백화점 역시 아직 김영란법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이다.

법 시행일이 9월 28일인자라 추석을 비켜 나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주롯데백화점 지하 1층 추석선물세트 진열대를 가보면 3만원 미만 저가와 10만원대 이상 고가로 확연히 구별돼 판매되고 있었다.

백화점 관계자는 "수도권 같은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판매 가격대를 놓고 아직 본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식으로 전혀 내려오지 않았다. 입점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초반 매출이 저조했지만 지금은 예년 매출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광명 기자

# 〈전북경제진흥진흥원〉 임실치즈RIS 사업단 우수사례 '눈길'

### 지역산업육성 관련 꾸준한 일자리 창출 등 성장모형 발표

전북경제진흥진흥원 임실치즈RIS 사업단이 지역연구산업육성사업과 관련, 우수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경제진흥진흥원 임실치즈RIS 사업단은 지난달 29~30일 부산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교류회(동서지역 RIS협의회)와 성과보고회(전남 지역 RIS/RCI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임실치즈RIS 사업단은 이날 임실치즈산업을 통해 1차(농민), 2차(제조업), 3차(유통, 마케팅), 4차(관광)산업을 연계한 다차산업 육성을 전했다.

또 꾸준한 일자리 창출(사업초

기 대비 200% 증가), 기업증가(사업초기 대비 240% 증가), 매출증대(사업초기 대비 120% 증가) 등 내실적 성장모형을 발표했다.

임실치즈RIS사업단 관계자는 "임실치즈산업을 산업화가 마흡한 지자체 중심 혁신 모범사례로서 임실치즈의 대중화를 목표로 산/학/연/관이 일체로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다"며 "특히 최근 낙농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임실을 명실상부 치즈산업도시, 더 나아가 자립형 농촌군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광명 기자

# 녹색기술 인증 실무교육 실시

### 전북테크노파크, 오늘부터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는 1~2일 전북테크노파크 2층 교육장에서 녹색기술 인증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

인증 취득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신뢰성, 제품의 판로 확대에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증 취득을 위한 실무교육 과정의 부재로 컨설턴트에게 고비용을 지불하여 취득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교육은 녹색기술센터와 연계해 진행되며, 녹색인증 취득 과정은 물론이고 자금조달, 투자유치, R&D

기획, 판로개척 관련 정보를 실무 위주로 교육한다. 또 교육 완료 후에는 녹색기술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재)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많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인증 취득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tbp.or.kr)를 참조하면 되고 인증 취득과 같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우선 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 적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광명 기자



이날 업무협약에는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박주식 전북도회 회장, 김은식 전북도회 부회장, 김해덕 전기산업연구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 전기공사협회-호원대 도내 전기공사 기술자 양성 위한 업무 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와 호원대(총장 강희성)는 지난달 30일 군산에 위치한 호원대학교 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전기공사 기술자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박주식 전북도회 회장, 김은식 전북도회 부회장, 김해덕 전기산업연구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호원대학교에서는 강희성 총장을 비롯한 이만중 평생학습지원본부장, 정진태 전기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해 전북 지역 전기공사 기술자 양성을 위한 실질적 인력양성 첫 걸음을 뒀다.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은 "형식적인 업무 협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기공사업계와 학생들을 위해 구체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호원대학교와 같은 지역 거점 대학교를 기점으로 학생들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업무 협약을 통해 뛰어난 전기공사 기술자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그간 우리 협회가 쌓아온 인력 양성 노하우를 잘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학이 함께 연계

해 전기공사업계 인력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본격적인 업무 협약이 이뤄진 후에는 인력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오갔다.

호원대학교측은 "위탁교육을 통해 현장과 이론을 아우르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며, "호원대학교 교수진과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5:5로 교수진을 이뤄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다.

협회측도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 능력까지 키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신광명 기자

# 새만금 입주 기업 '기반' 마련

### 새만금개발청-전북은행, 맞춤형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과 전북은행이 31일 전주 전북은행 본점에서 새만금개발청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입주 기업의 금융서비스 지원 및 잠재투자자 공동 발굴 등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전북은행의 국내외 지점망을 활용한 새만금 사업 홍보, 입주 유망기업 공동 발굴 및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북은행이 우수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결실한 은행인 만큼 새만금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유망한 투자기업 발굴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북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정부 정책여향을 제고하는 정부 3.0 유망한 정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고민형 기자

# 이란 쿠제스탄 수전력청장 새만금 사업 현장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지난달 31일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이란 쿠제스탄 수전력청장 등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을 소개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안내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이란수자원공사(IWRM), 쿠제스탄수전력청(KWPA)과 수자원개발분야 협력을 위한 MOU체결 이후 지속적인 농업수자원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새만금사업 등 국내 대대위 사업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다.

이들은 신시33센터에서 새만금 사업을 통한 수자원 확보 및 첨단농업 조성, 배수갑문 운영을 통한 홍수예방 등 복합적 용도로 개발중인 새만금 사업을 확인했다.

김계-락노태 기자

## 현대자동차, 안전장치 무상 제공하는 '안전 운전 캠페인'

현대자동차(주)가 대형 상용 트럭 엑시던트 트래커 와이드 범퍼 차량(골드 프리미엄 트림) 구매 고객에게 올해 말까지 긴급제동시스템(AEBS: Advanced Emergency Brake System)과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 Smart Cruise Control) 등 안전·편의장치를 무상으로 장착·제공하는 '상용차 안전 운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로 사회적으로 상용차의 안전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국내 상용차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고객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본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용차 안전운전 캠페인'은 오늘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대형 상용 트럭 엑시던트 6X2(6 바퀴 중 2 개 바퀴로 구동하는 방식) 트래커의 골드 프리미엄 트림 구매 고객 중 전방 센서 장착이 가능한 와이드 범퍼 장착시, 대표적인 안전장치인 긴급제동시스템(AEBS)과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 기능을 무상으로 장착·제공하는 획기적인 최신의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긴급제동시스템(AEBS)은 자동차 전방의 센서로 장애물 감지 후 충돌 위험에 대한 경고를 주고 위험시 자동으로 제동하여 충돌을 회피하도록 하거나,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를 경감하는 장치다.

원주=이종복 기자

#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주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